



최경주, PGA 투어 시즌 끝내고 귀국 “누룽지도 오래 끓여야 제 맛”

많은 훈련·경험 덕분 40세 넘어서도 선전

신한동해오픈 출전 ... “내년엔 메이저 우승”

한국프로골프의 간판 최경주(41·SK텔레콤)가 2011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을 끝내고 2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최경주는 올해 5월 PGA 투어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해 종합순위 11위에 오르는 등 비교적 좋은 시즌 성적을 남겼다.

29일 개막하는 신한동해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 최경주는 “한동안 우승을 못하고 부진했을 때도 성원을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시즌 선전이 새로운 시즌으로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시즌에 대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것을 보여줄 수 있었던 뜻깊은 시즌이었다”고 총평했다.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하는 바람에 플레이오프 역전 우승의 꿈은 이루지 못한 최경주는 “투어 챔피언십에 아홉 차례 출전했는데 이번 성적이 가장 좋았다”며 “모든 일이 한 번에 잘할 수 없듯이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고 공동 3위가 우승보다도 값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경주는 또 “많은 분들이 8번홀에서 더블보기를 한 것을 아쉬워하시지만 17번홀에서 나온 칩인 버디는 내 생애 가장 잘 친 어프로치샷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경주는 40세가 넘어서도 PGA 투어에

서 선전할 수 있는 이유를 “누룽지도 오래 끓여야 맛이 난다”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 훈련하면서 경험을 쌓은 점을 꼽았다.

PGA 투어에서 8승을 거둔 최경주는 “내년에도 9승, 10승을 향해 나아가겠지만 이중 메이저대회 포함됐으면 좋겠다”며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올해 PGA 투어 정규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최경주는 국내 대회인 신한동해오픈에 이어 자신의 이름이 붙은 'K.J Choi 인비테이션' 및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두 대회에 출전한다.

이어 11월 호주에서 예정된 프레지던트스컵(미국 팀과 유럽 제외 인터내셔널 팀 간의 골퍼대회)에 나간 뒤 12월 타이거 우즈(미국)가 초청한 세븐 월드 챔피언십 대회 출전을 끝으로 올 시즌을 접을 예정이다.

최경주는 신한동해오픈 골퍼대회에서 정교한 아이언 샷이 승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습뉴스

한국프로골프투어

상금왕 경쟁 '후끈'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투어(KGT)의 상금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막판 경쟁이 이번 주부터 후끈 달아오른다.

29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72·7389야드)에서 열리는 신한동해오픈은 총상금 10억원에 우승 상금 2억원이 걸린 특급대회다.

이 때문에 시즌 상금왕을 노리는 상위 선수들 간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수밖에 없다.

현재 홍순산(30·SK텔레콤)이 3억7700만원으로 상금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위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3억6400만원), 3위 박상현(28·안드레김골프·3억3600만원)과의 차이가 5000만원 미만이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상금랭킹 2위에 오른 김경태는 한국투어에서도 상금왕을 노리고 있다.

상금랭킹 4위인 이승호(25)를 비롯해 1억 원대 상금에 머물러 있는 선수들도 신한동해오픈을 시작으로 코오롱 한국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3억원) 등 특급대회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역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한국프로골프의 간판인 최경주(41·SK텔레콤)와 PGA 투어 '투키'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 장타자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도 신한동해오픈에 나서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승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작년까지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서 열렸던 대회장소가 올해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달 중순 시니어대회에 출전한 PGA 투어의 베테랑들도 긴 장정에 까다로운 그린을 경험한 뒤 “너무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다.

연습뉴스



공보다 머리카락

막달레나 리바리코바(슬로바키아)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범태평양 오픈 테니스대회 1라운드 도미니카 시블코비치의 경기에서 리턴샷을 날리고 있다.

연습뉴스

총상금 5억 여자 프로골프 대우증권 클래식 30일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KLPGT) 골든에이지(GoldenAge Cup) 대우증권 클래식(총상금 5억원)이 30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시 지산골프장 남동코스(파72·6465야드)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에서 활약하는 최나연과 서희경이 출전한다. 올해 KLPGT에서 치열한 '3파전'을 벌여온 양수진, 유소연, 심현화의 경쟁도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양수진, 유소연, 심현화는 상금,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

을 벌이고 있다.

상금에선 양수진이 2억8532만원으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유소연이 2억8002만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심현화(2억7054만원)도 우승 상금 1억원을 보태면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다.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는 유소연(207점)과 심현화(203점)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연습뉴스

‘형제의 맞대결’

프로야구 형제선수들이 뜬다



광주 진흥고 출신 한화 나성범 - NC 나성범

프로야구에서 ‘형제선수’가 뜬다. 올 시즌 신인 시장의 대어로 꼽혔던 진흥고 출신의 나성범(연세대)은 최근 신생팀 NC 다이노스와 3억에 입단 계약을 골냈다. NC가 2013년 예정대로 1군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나성범은 프로야구 ‘형제 맞대결’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나성범의 친형은 한화의 화끈한 가을 야구의 한 축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포수 나성용이다. 나성용과 나성범은 대성초-진흥중-진흥고를 거쳐 연세대에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형제이자 눈빛만 봐도 통하는 동료사이다.

공교롭게 두 선수 모두 고향팀 유니폼을 입지는 못했지만 한화의 차세대 안방 마님, 투·타에서 돋보이는 실력을 보유한 신생팀 NC의 만능 선수로 형제 맞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형제선수는 SK 외야수 조동화와 삼성 내야수 조동찬이 있다. 올 시즌에는 두산 양현, 한



한화 양현 - 두산 양현



SK 조동화 - 삼성 조동찬

진흥고 출신 나성범 NC입단

원 한화 나성용과 대결 관심

조동화·조동찬, 양현·양현 등

돋보이는 실력 팬 사랑 '듬뿍'

화 안영진 그리고 SK 지명을 받은 최항의 등장으로 ‘형제선수’가 더 눈길을 끌고 있다.

두산의 신인 투수 양현은 올 시즌 한화의 젊은 선발진을 구축한 투수 양현의 친동생이다. 양현은 188cm, 양현은 192cm. 장신의 꼭 닮은 투수지만 형이 강속구를 앞세운 우완 정통파, 동생 양현은 좌완의 정통 언더핸드투수다. 양현은 지난 11일 KIA와의 경기를 통해 프로무대 신고식을 치렀다.

올 시즌 5년만의 늦깎이 데뷔로 눈길을 끌었던 한화의 투수 안영진도 동생 안영명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형제 선수다. 지난해 안영명이 KIA로 트레이드 됐다가 올해 이범호의 보상선수로 한

화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같은 팀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2012 신인 드래프트에서 SK의 지명을 받은 내야수 최항도 형인 최정과 함께 그라운드에서 오를 날을 꿈꾸고 있다. 소년장사 최정처럼 최항도 고교 원소거포로 소문났다. 유신고에서 1루를 맡았던 최항이 프로에서 3루수 최정의 공을 받을 수 있을지가 2012년 SK 팬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지난 가을 팀의 우승컵을 놓고 벌여졌던 SK 조동화와 삼성 조동찬의 ‘형제 맞대결’은 올 시즌에는 불가능하다. 포스트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이며 ‘가을 동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조동화가 얼마 전 무릎 인대 파열 부상으로 시즌을 접었기 때문이다.

KIA 김선빈은 4년 뒤 내야수 형제 콤비를 그리고 있다. 화순고 후배인 동생 김선현은 지난해 프로지명을 받지 못해 동국대에 진학을 했지만 센스있는 좌타자다. 올 시즌 김선현이 손가락 골절, 김선빈이 코뼈·잇몸뼈 골절 부상을 당해 고전도 했지만 두 형제는 힘차게 프로와 아마무대를 누비고 있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Llumar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 가죽시트

세련된 고급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상 펌프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레이크패드 무료점검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한국카렌드 자동차용품 백화점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렌드가 하는 일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둑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서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객정 끝

임동오거리 | 임동사거리 | 임동방직 | 하남

한국카렌드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진)